

특/별/대/담

변화한 한반도, 다시 묻는 통일교육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새로운 역할과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제훈 원장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대담에서는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의 명칭 변경이 갖는 의미를 짚어 보고, 평화·통일·민주를 교육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변화한 남북관계와 세대 인식 속에서 통일과 분단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미래 세대가 북한과 한반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과 다양한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 가기 위한 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대담은 조동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해 수록한다.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일(목), 10:00~12:00,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사회

조동호(KDI)

대담

이제훈(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조동호: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한 한반도 환경 속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 갈 것인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이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북한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 사회의 통일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이전 세대처럼 당연히 이루어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묻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 통일교육원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의 이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역시 변화한 현실과 세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원 개편의 의미에서 출발해 평화·통일·민주를 교육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미래 세대에게 북한과 분단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나아가 북한경제와 남북교류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언론 현장에서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취재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정책을 바깥에서 관찰하고 질문하는 위치에 계셨다면, 이제는 직접 국가 교육기관을 이끌며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위치에 서게 되셨는데요. 직접 교육원을 맡아 보니 기자 시절과 비교해 무엇이 가장 다르게 보이는지, 취임 소회와 함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질문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이제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로 있을 때에는 통일교육 자체를 세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시다.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고 그중 상당 기간 한반도와 남북관계를 취재했지만, 기자가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사건이나 안보 현안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밖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했던 점은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강조점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통일교육 역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입니다. 기자로 있을 때에는 그런 변화가 다소 아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원에 들어와 보니 생각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바뀌고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과 공무원의 위치가 얼마나 다른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자일 때와 지금은 세금과 국회, 언론, 법령을 바라보는 감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적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기자 시절에는 다소 답답하게 보였던 행정의 절차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고민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경험을 모으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교육원을 맡아 가장 먼저 만들어 가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훈: 제 바램은 교육원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자체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 교육을 받으러 들어왔을 때에 건립, 교육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적어도 한 가지 질문이나 고민을 새롭게 더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민주, 나란히 놓는 것을 넘어”

조동호: 그런 문제의식이 이번 교육원 개편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통일교육원에 ‘평화’와 ‘민주’가 더해졌다는 점을 보면 단순한 명칭 변경이라기보다 교육의 지향과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변화로 읽힙니다. 이번 개편의 의미를 원장님께서서는 어디에서 가장 크게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훈: 저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서의 명칭 변경과 교육 방향의 전환에는 크게 봐서 적어도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추세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한반도에서 나타난 현실의 변화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965년에 태어났는데, 저 같은 세대에게 분단은 가족사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산가족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혹은 통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분단은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일종의 자연 질서나 공기처럼, 원래부터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단이나 통일이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꿈을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북한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거처럼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단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변화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은 기존의 통일교육을 없애고 전혀 다른 교육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기 보다, 통일교육이 다루어야 할 질문과 영역을 넓혀 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그런데 새 명칭에서는 ‘평화’가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명칭의 배열이 어느 정도 강조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이번 개편을 통일보다는 평화에 보다 무게를 두는 변화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평화, 통일, 민주라는 세 가치 사이에 위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원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평화와 통일, 민주라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관계라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치라고 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느 가치를 앞세우느냐보다 세 가치를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연결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각각이 별개의 교육 영역으로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면 개편의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기 어렵겠지요. 실제 교육에서는 이 세 가치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훈: 저 역시 세 가치를 단순히 나란히 배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묶어 놓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확장하는 ‘화학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process)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자체가 평화적이어야 하고,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세 가치는 서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통일·민주는 실제 교육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개념적으로 세 가치를 연결하는 것과 실제 교육 안에서 유기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텐데요. 그 변화가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죠.

이제훈: 몇 가지 시도를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입니다.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현장 체험과 강연, 토론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운데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책 중 하나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인데, 이 책의 목차에 ‘분단’이나 ‘통일’이라는 말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별과 평등, 타인에 대한 존중,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저는 이런 교육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화학적 결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감각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와 통일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영호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을 돌아보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육이 반드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만나고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교육적

경험입니다.

교육의 공간도 넓힐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해서 비무장지대(DMZ)나 접경지역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19민주묘지나 제주4·3평화공원과 같은 역사적 공간이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 분단과 연결된 개인의 삶 역시 충분히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주제 역시 한반도 문제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권과 기후위기, 국제 분쟁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가고자 합니다.

“정답보다 근거를, 결론보다 판단을”

조동호: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늘어질수록, 반대로 어떤 원칙만큼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가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정부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통일 문제처럼 견해 차이가 큰 분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교육의 원칙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훈: 먼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세대와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평화로운 공존을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교육인 만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준을 헌법의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나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과 민주적 가치는 교육의 일관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본 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원칙은 유지·확대하려 애쓰며 변화한 북한의 현실과 남북관계, 정책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 국가기관의 역할은 하나의 생각으로 수렴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이 함께 설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능한 한 넓혀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동호: 그런데 평화·통일교육은 가치 교육인 동시에, 사실에 충실해야 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에서는 같은 사실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에서 말하는 객관성과 균형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제훈: 우선 객관성을 위해서는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주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 각각의 견해가 어떤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도록 해야 합니다.

균형성은 모든 주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원은 정답을 대신 제시하기보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뇌 근육’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아는 것 못지않게 어떤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그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를 스스로 따져 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조동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사가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교육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원칙을 적용한다면 통일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역시 교육의 장에서 정당한 논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텐데요.

이제훈: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견도 사실과 비폭력·민주적 가치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교육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지향을 갖고 있더라도 통일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은 교사가 특정한 결론으로 학습자를 이끄는 데 있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과 그 근거를 충분히 살펴보고 학습자가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봅니다. 교육원에서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제시하는 강압 금지, 논쟁성, 학습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원칙을 참고하면서, 이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단을 잊어도, 분단은 우리를 규정합니다”

조동호: 우리 사회의 통일 인식이 달라지는 가운데, 북한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아예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우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시절과는 전혀 다른 남북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우리 평화·통일교육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이제훈: 교육원은 국가 차원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가치와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변화도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 위에서 남북의 상호 존중과 화해·협력,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분단이 너무 익숙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분단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탈분단의 감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단을 자연스럽고 영구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이 지금 나의 삶과 선택,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너머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동호: 젊은 세대에게 통일을 당위로 제시하기보다, 먼저 분단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통일 역시 하나의 완성된 상태나 최종 목표로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훈: 저는 통일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11월 처음 관광이 시작됐을 때에는 12시간이나 배를 타고 가야 했지만, 이후 육로가 열렸고 2008년에는 자기 차를 몰고 가는 승용차 관광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 하나하나가 통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통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만나고 이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가 쌓이면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점차 일상이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원에서는 통일을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통일해야 한다”라는 답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보고 평화공존과 통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동호: 평화·통일교육의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가 학교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수업시간, 정치적 논쟁이나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사들이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 조심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사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훈: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돌린다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원은 교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 여건에 맞는 자료와 교수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원은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북향민 강사와 교육 내용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강사가 2인 1조로 함께 수업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에 따라 교육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복잡한 분단구조나 정치적 쟁점을 먼저 설명하기보다 이야기와 놀이, 체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감각을 쌓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원이 해야 할 일은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와 교수법을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며 학생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를 넘어, 북한을 읽는 힘으로”

조동호: 『KDI 북한경제리뷰』 독자들의 관심을 고려해 경제적 측면도 여쭙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통일대박론’처럼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통일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제훈: 비용과 편익을 따져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을 설계하거나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분단으로 발생하는 부담과 남북협력의 기회,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인구나 GDP와 같은 거시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혜택과 부담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북 주민의 삶과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의미를 경제적 수치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분단이 우리의 상상력과 선택의 범위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학생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고 싶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국내의 다른 지역을 떠올리고 극소수만이 해외를 떠올렸을 뿐, 군사분계선 북쪽 유라시아 대륙을 자신이 이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이 만주로 향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는 만주 역시 사람들이 이동하고 활동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됐습니다. 지금은 북쪽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실상 닫힌 공간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 때문에 생기는 나의 불편은 무엇인지,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제약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일의 편익을 숫자로 제시하는 것과 함께,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라면 내 삶의 가능성과 선택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조동호: 말씀처럼 분단의 부담과 통일의 비용·편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과 한반도 현실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를 둘러싸고는 시장화, 성장의 지속가능성, 지역·계층 격차,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립니다. 교육은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할까요?

이제훈: 저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과 관련한 개별적인 소식·뉴스를 많이 아는 것 못지않게, 그 소식·뉴스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단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 사회의 ‘지속과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이어지고 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두고 처음부터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를 포함해 다수의 나라에선 특정 산업별로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특화 경향이 강한데, 북한은 왜 여러 지역에 유사한 산업시설을 복제하듯 건설하려 하는가. 아울러 발표된 정책은 실제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민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역할은 정답을 미리 제시하는 데 있기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외부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북한경제를 비롯해 정치·사회·군사 등 각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 연구성과를 교육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KDI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원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강점을 연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훈: 그렇습니다. 교육원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가 있고, 정치·사회·군사 분야에도 각각의 전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교육 콘텐츠와 연결하고,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다시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연구의 전문성과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이 서로 오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교육의 깊이도 한층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교류의 경험과 역량, 교육으로 잇다”

조동호: 남북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북한은 직접 접하는 공간이라기 보다 뉴스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이해하는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거나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해 본 사람도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겠지요. 직접 경험의 공백을 교육이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훈: 직접 경험이 어려워진 만큼 북한을 접하고 이해하는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이나 문학, 북한민과의 만남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영상이나 개인의 경험을 북한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자료의 출처와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와 뉴미디어를 활용한다면 직접 북한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동호: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을 접할 기회를 넓히는 것 못지않게, 과거 남북교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잃지 않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방북이나 남북경협 교육의 수요가 크게 줄었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다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전할 것인가도 교육원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방북 교육도 운영했지만 지금은 실제 방북 기회가 없고, 남북경협과 관련된 교육 역시 당장의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까지 함께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교류협력 과정에는 성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돌아보면서 서로 다른 제도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실제 교류협력에 필요한 전문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남북협력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중앙 정부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보존하

고 다음 세대로 이어 가는 일에 교육원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접점을 넓혀, 다시 찾고 싶은 교육원으로”

조동호: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교육원의 역할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 여러 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원 혼자 그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을 텐데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훈: 이미 대학의 북한·통일 관련 연구소나 교육청 등과 여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을 단일한 조직체계로 묶기보다는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될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 자체가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동호: 그런 지역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의 역할도 새롭게 설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원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제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다소 명예직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교육원과 교육 현장을 잇는 네트워크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와 가장 많이 만나는 교원과 교수, 예비 교원, 관련 분야의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원이 직접 모든 국민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을 현장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민과의 접점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양질의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나온 경험과 질문이 다시 교육원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조동호: 교육의 외연을 넓힌다면 대상 역시 국내에 한정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재외동포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도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는 낯설지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국내 대상 교육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이제훈: 이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 대학생이나 동포 등을 대상으로 강의와 세미나, 현장 견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분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문제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글학교 등과 협력해 교재와 지도서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동호: 오늘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교육원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쳤을 때 국민들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어떤 곳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단을 부인한다고 해서 분단의 규정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분단이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끼치는 영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분단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그 너머의 한반도를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으로서도 조금 다른 꿈도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정부미’와 ‘일반미’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짬은 맛이 없고 일반 짬은 맛있다는 인식이 있었지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짬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남아 있던 ‘관급,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것은 재미없다’는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육도 그래서 안 됩니다. 정부기관이 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딱딱하고 재미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변화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박물관의 이미지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굿즈와 캐릭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교육원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육원이 이런 것도 하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렵고 낯은 기관이 아니라 조금은 ‘힙한’ 곳이라고 느끼는 교육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원래 새로운 일은 작은 시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오늘 말씀을 통해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서의 개편이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한 남북관계와 세대 인식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새롭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답을 전달하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과 근거를 살피며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 주는 교육, 그리고 통일을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자로서 걸어오신 길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길이 잘 만나서, 국민들에게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맡으신 자리에서 좋은 성과 많이 거두시길 바라고, 또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